



여원 스페셜 대담

91.-6

분단 43년만에 처음 북한땅 밟은 세의원

박정수 VS 박영숙 VS

(민자당·국회외무통일위원장)

(신민당·최고위원)

“한 핏줄끼리 왜 이리도 변했을까,
눈물이 솟구쳐서...”



분단 이후 처음, 북한땅을 밟은 국회대표단. 지난5일까지8박9일의IPU총회기간 내내 북한 구석구석을 살필 기회를 가졌던 세의원. 궁금하기만한 북한 여성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 특유의 감각과 정치인들의 시각에 잡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하나의 '사건'이었다면, 방문후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의 '사건'이었다. 4월27일, 판문점에서 개성을 향하다 '강경대군 피살사건'을 들어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말대로, 8박9일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서울은 매우 함성과 연기로 조용할 날이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

여야, 서로의 입장이 달라 상징적으로는 대책회의·집회... 참석하는 곳이 정반대였던 의원들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갔다온 북한, 그리고 거기서 같이 공감했던 이야기들을 널리 나누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정국이 정국이다 보니 다들 하루 2~3시간 눈붙이기 힘들 정도로 비쁜 일들이 산적, 한 자리에 모임이 '사건'이 됐을 정도.

스타킹·볼펜... 선물 건네면 '우린 잘 삽니다. 필요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 아이구, 반갑습니

도영심

(민지당·외무통일위)

다. 여독 풀릴 새도 없었죠? 까먹기 전에 북한여행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개성에서 평양까지 가는 도중에 받았던 첫인상은 너무도 황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니 도시계획은 제대로 돼있는 것같은데 생동감이 없었고, 큰 빌딩들이 과시를 위해 만든 무슨

전시장같은 느낌이 컸습니다.

박영숙의원 : 중학교엔 다니다 피난와 44년만에 찾게되는 고향이었으니 얼마나 설레었는지요. 그런데 서울도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평양은 더 달라져 대동문, 보통문, 연광정 정도의 유적지가 아니었다면 옛모습을 찾을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산림이 울창했었는데, 식량난 때문인지 산들을 모두 갈아엎어와 벌경게 돼있는 등 생태계의 훼손이 심했습니다. 옛거리 이름도 아는 이가 없었고, 평양토박이도 9일간 딱 두사람을 봤을 정도로 낯선 곳으로 바뀌어 섭섭했습니다. 해서 외가쪽 친척들을 찾아보겠다던 애초의 생각은 차라리 접어두었습니다.

도영심의의원 : 개성서 평양간이 서울서 대전 거리 정도 되는 것같은데 4시간이 걸렸고, 사람들 걸음도 상당히 느린 게 우리보다 한 템포가 느린 듯해보였습니다. 일견 스트레스가 적어 보이기도 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회가 더 적합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생각입니다. 여자들의 옷차림에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쉽게窺이더군요. 보통 흰색과 검색의 낡은 개량한복을 많이 입고 있었는데, 좀 멋을 부린 경우가 분홍이나 은색의 무늬있는 벨벳 한복착용이었어요. 우리가 머문 숙소엔 '봄'이란 상표의 화장품들이 놓여있었는데, 걸포장부터 우리네 70년대 수준이었어요. 살찐 사람은 단 한사람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날씬했는데, 진분홍의 두꺼운 스타킹이 참 어색하더군요. 헤어스타일도 우리 70년대식의 좀 촌스러운 것이었고... (이하 존칭 생략)

박영 : 북한 노동자의 한달 평균

임금이 80원 선인데 스타킹이나 양말 한 켤레에 22원을 훔가합니다. 여기서 선물을 하려고 스타킹이나 동물볼펜, 초컬릿 같은 것을 많이 사갔는데 줄 때 여간 조심스럽지 않더군요. 대뜸 '이까짓 것 우리도 있다'는 식입니다.

도 : 아침식사 대신 커피를 한 잔 시켰는데, 미안해서 팁을 줬더니 '우리는 잘 삽니다. 필요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이건 좋은 서비스에 대한 답례다' 하면서 설명했더니 반더군요. 혹시 우리가 못사니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겠고, 자존심이 대단한 일면도 있었어요.

박정 : 우린 뭐든 다있다, 없는 게 없다, 불만이 없다... 만나는 이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들 자존심이 대단했는데, 저는 그것을 열등의식의 반작용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손님대접 하느라 그랬겠지만 서민식탁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떠벌어진 진수성찬이나, 백화점 흑백 TV 파는 곳에서 만난 여성 몇명이 집에 천연색 TV가 있지만 한 대 더 사려한다는 문지도 않는 대답같은 것들이 서글웠습니다.

도 : 산해진미도 산해진미였지만 양도 너무 많더군요. 많이 드십시오 하며 과잉대접을 하는데 평소의 양 탓에 참 난감하더군요.

박영 : : 북쪽이 본래 양이 많긴 합니다. 평양만두 두세개면 배가 불렀던 걸요. 전복·송이·큰새우·잉어... 같은 음식들이 줄곧 올랐고, 저는 백김치가 맛있어 계속 기다렸는데 끝내 안나올 정도로 김치도 매번 다른 종류로 바꿀 정도였으니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박정수

“우리 뭐든 다 있다, 불만이 없다…” 만나는 이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들 자존심이 대단했는데 저는 그것을 열등의식의 반사작용으로 느꼈습니다. 독일처럼 남한이 북한을 삼켜버릴까봐 몹시 우려하고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박정 : 그런데 거 음식맛은 참 기막히던데요. 아내를 요리연수 보내고 싶을 정도로. 특히 육류관의 냉면이 참 맛있어 거꾸 먹으려 갔었는데, 외국인들 뿐 조용하더군요.

도 : 초대소에서 극영화를 두편 봤는데, 거기 나오는 북한 서민들 식단은 ‘야채, 밥, 국’이 거의 공식화된 음식들이더군요.

박정 : 5월1일, 메이데이의 대성산 등산길에 야유회 나온 많은 북한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피크닉 음식을 보니 팔고물 문헌 찰떡 몇조각, 숙주·시금치나물 등 나물 몇종류, 오리고기같은 게 전부였습니다. 메이데이라면 북한에서 두번째로 큰 명절인데 이 정도이니 살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얼굴 흰 사람도 못봤으며 머리 카락이 빠졌거나 흰사람도 잘 보이지 않았습다. 채식위주의 생활

에 더 잘 하려고 노력하거나 경쟁할 일도 없고, 머리 쓸 필요도 없으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 : 우리나라의 60~70년대, 소풍가는 날 몰아서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3대가 같이 사는 16평 아파트에 가봤는데, 침실이 2개에 식당방이 하나, TV, 선풍기가 있고 냉장고가 2개나 있더군요. 우리 같으면 이것 저것 먹던 음식들이 많을텐데 냉장고 2대에 고기만 가득가득 했습니다. ‘내일 잔치하 시나봐요’하고 얼른 달았죠. 옛날 생각이 나던 장면은 이불장과 옷장이 하나씩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 선지 시집갈 때 얼마나 두꺼운 이불을 해오냐에 따라 ‘혼수 잘해왔다’ 하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집 솜이불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습니까? 하루 급수 3시간으로, 물은 받아두고 쓸 뿐더러 전기를 아끼느라 방마다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것이 공통스런 정도였습니다. 화장대나 책상위의 부분조명 같은 건 생각도 못할 일이고요.

도 : 화장실 등이 그나마 밝아 신문들 거기서 봤다니까요. 물자가 없으니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에 있는 쓰레기통이 맥주잔만 하달까, 앙증맞을 정도였습니다. 버릴 게 없다는 반증이겠죠. 또 한가지 실소한 일은 먹는 것 갖고 사람차별하는 데는 IPU총회 사상 북한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의원 방의 과일과 사과·배·값싼 술, 조금 더 높은 사람 방에는 메론 추가, 좀더 비싼 술…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듯 철저한 계급사회에 계층간의 갈등도 꽤 심한 눈치였어요.



박영숙

“남북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 왜소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그맣고 마르고 얼굴이 검은데다 나이트 사람들은 ‘곰게 늙었다’ 소리가 안나올 정도로 얼굴들이 거칠고 험하더군요. 무엇보다 ‘사람’ 이라기보다 ‘기계’ 같아진 평양사람들에, 우리 동향인이 왜이리 변했을까 싶어 눈물이 솟구칩니다”

말끝마다 통일, 통일되면 결혼하겠다는 젊은 남녀 많아

박영 : 도농간, 업종간, 성분간의, 특히 선민인 평양사람과 타지 사람과의 천지차이가 있음을 알았고, 이미 계층간의 그런 갈등이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된 내용도 그런 계층갈등 상쇄를 위한 것들이더군요.

도 : TV나 라디오도 각각 한 채널 뿐인데, 거기서 뉴스, 음악,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다 맡고 있더군요. 주된 내용이 김일성 부자에 대한 일관된 찬양이거나 남한에 대한 극렬비방이었죠. 클래식음악만 나오는 채널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신기한 듯 쳐다보고, 신문의 주된 내용도 정치선전으로, 우리처럼 문화·생활·연예면 등 다양한 지면은 찾아볼 수 없더군요. 특히 김일성부자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감정

이 격앙돼 다들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박정: 음식이다, 남남북녀다, 날씨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감정의 벽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역시 같은 민족이구나... 싶다가 정치나 통일, 체제 이야기에 들어가면 거리감이 너무 크구나 하며 가치관의 엄청난 벽을 금방 실감하고 말아요. 46년 단절의 비극이 여실한 장면이 속출했어요. 시중들어주는 아가씨들도 그렇게 예쁘고 상냥하다가도 정치얘기만 나왔다 하면 억양이나 말투가 과격해지고 도전적으로 변해 어안이 병병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통일될 때까지 결혼안하겠다는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공공연히들 하더군요. 평양 곳곳에서 바로 눈앞에 통일이 와있는 듯한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통일열기로 국민들을 결속시키고 있는 인상이 짙었어요. 김일성의 나이가 올해 79세인데, '80세 생일 때는 통일을 선물로 안겨드리고 싶다'는 소리를 어린아이들까지 공공연히 해요.

박영: 북한의 통일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듣고 있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왜 통일을 바라는지 그 이유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니깐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통일이 돼야 한다, 김주석이 지난 40여년간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으나 통일만은 아직도 이루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허끝에 두었다 하는 말처럼 질문이 떨어지자 금방 튀어나왔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물어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삶의 의미



도영심

"화장실 등이 그나마 밝아 거기서 신문을 봤습니다. 방에 있는 쓰레기통이 맥주잔만 하달까, 양종땀을 정도였습니다. 버릴 게 없다는 반증이겠죠. 또 한가지 실소한 일은 먹는 것 갖고 사람 차별하는 데는 IPU총회 사상 북한이 처음이었어요"

도 무의미도 오로지 김일성의 의지와 결부해서 찾고있는 북한주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죠.

도: 김일성 경기장에서 5만여 학생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집단체조를 봤는데, 솔직히 섬찟하더군요. 인간 기계의 모습 이랄까. 우리 부모들 같으면 한바탕 농성을 벌일텐데, 거기선 무슨 근거에선지 마스게임을 하면 7cm가 자란다며 불평불만이 없어요.

박정: 저는 솔직히 묘기에 참 매료됐는데, 외국의원들의 이구동성이 '소름끼친다'였어요. 우리보다 더 사고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기계적인 강압훈련은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서비스 근진한 바의 공훈 마담, 이혼은 생각도 못하는 나라

박영: 46년,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로 개혁을 하며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내걸었는데 어느정도 성취되었는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접해보고 싶었지만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택이소, 밥공장, 세탁공장 등의 사회화로 직업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크게 고생스럽지는 않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북한여성의 당면문제는 성차별보다 계층간 차별에서 오는 요인이 더욱 큰 것 같아 보였어요. 그곳 고위급 여성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여성들은 이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각기 맡은 분야의 전문인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건조성이 잘돼있는 게 우리로선 부러웠다고나 할까요.

도: IPU 여성위원회의 이번 의제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금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40여개국 80여명의 회원이 각기 연설을 통해 문제를 제기,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었는데, 북쪽의 반응은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는 성폭력이나, 강간, 가정불화, 이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고, 뜻이 안맞을 수도 있는데 어찌 이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혼이 가능한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영: 저도 입만 열면 하도 '통일'을 읊조리길래 여기는 이혼하는 사람은 없냐고 화제를 돌려보았더니 '없다며 극구 부인하더군요. 곰곰히 한번 이유를 따져보았죠. 평양만 해도 골라뽑혀진 선민만 사는 데고, 소위 노동당원이 되는 게 출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를 위해선 사상무장도 철저히해야겠지만 개



남새(채소)가게의 북한여성들. 차림이 소박하다



평양↔개성 열차인

인의 윤리성이 크게 강조되더군요. 그러니 이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거죠. 금강산 갔다 오는 길에 밖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그 산길을 여자들이 혼자서 걷는 걸 보고, '아이쿠, 인신매매' 생각이 언뜻 스쳤는데, 그걸봐도 그런 위험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려호텔의 지하와 윗층에 바가 있었는데 거긴 30대 전후의 기혼여성들이 공훈마담·공훈접대원으로 나와 남자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매음 직전까지는 다해주더라는군요. 한 외국원은 선물을 줄 테니 방에 같이 가자는 유혹도 해봤다는데, '아유 내일 모란봉에서 만나요'하며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남편 이야기든 곧잘 화제로 올리더라는데, '당에서 시키면 무엇이든 한다'는 생각의 한 반증인 것 같아요.

도: 사실 특히 남자분들 술 마실

데가 없어서 곤욕 많이 치렀죠. IPU총회 할 때 다른나라의 경우 전부, 의원들 개인이 비행기값이니 호텔비니 내가며 참가하는데 일체를 다 배려해준 경우는 북한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9시면 상점이니 뭐니 모두 문을 닫는 데다,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못해 완전히 갇혀있었으니 다들 많이 답답해 했어요.

작은 것부터 자꾸 주고받아 서로 믿고, 마음 여는 일 절실

박영: 남남북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 애소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그맣고 마르고 얼굴이 검은 데다 나이는 사람들은 '몹시 늙었다' 소리가 안나올 정도로 얼굴들이 거칠고 험하더군요. 생활상이 한 눈에 짚어져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사실에, 개개인의 인간성이 말살된 기계같이진 평양사람들에, 우리 동향인들이 왜이리 변했을까 싶어 누구를, 어디를 향하는지 모를 분노와 함께 눈물이 솟구칩니다. 정부당국자들끼리 하는 통일은 요원해보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작은 발자국이라도 기습부터 열 수 있는 일이라면 한부분 감당하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도: 박영숙의원께서 이번에 이산가족 중에서도 고령이 된 이산부부의 상봉계획을 추진해보자고 제안도 하셨어요. 46년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우리 여성들의 모성, 따뜻한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박정: 43년간이나 서로 단절상태로 살아왔으니 상호 불신이 대단할 밖예요. 말로만 불가침선언을 골백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신뢰구축부터 해야지요. 쉬운 것부터 서로 교류, 통일분위기와 대화분위기를 성숙시켜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산가족 재회, 물질·인적 교류를 계속해야지요.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선입관도 가시고, 친숙해지면서 흥금도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독의 통일방식처럼 흡수통일될까봐 그네들은 많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남쪽 어린이들이 깡통차고 밥언어먹으며 다니는 줄 알다가 개방이 되어 실상을 알게되면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북한이 폐쇄를 고집하는데, 그래서 우리쪽에서 경제교류 또는 원조부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마음도 좀 여유있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여하튼 마음도 물건도 자꾸 오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윤정미
사진/최병문